

##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 부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을 중심으로

남영희\* · 정민경\*\* · 이순욱\*\*\*

1. 서론
2.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1)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변화와 지원 규모
  - 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개념과 사업
3. 부산 문화예술교육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 1) 2017~2019년 사업 현황
  - 2) 2019년 운영실태
  - 3) 시사점
4.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5. 결론

### <국문초록>

한국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독특한 정책 개념이다. 미적 체험과 표현, 창의성, 감성과 연관한 예술교육과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성찰, 문화 다양성, 소통에 관심을 두는 문화교육이 복합되어 개인의 내적 성장과 사회적 성장을 함께 추구한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일정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구축하거나 문화생태계를 안착시키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2019년 부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을

\* 제1저자, 동의대학교 강사 (74eunice@daum.net)

\*\* 공동저자, 부산대학교 강사 (aquawing@naver.com)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교수 (enfb@pusan.ac.kr)

대상으로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한 결과, 사업 비전과 목적의 재설정, 사업 기반 강화,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의 지속적인 육성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참여자들의 사적 혜택에 집중해 있던 체계를 커뮤니티라는 공적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해 나가야 함을 제시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을 위한 교육이나 예술을 통한 교육이 아니다. 따라서 지역 문화예술교육은 지역 기반 예술가를 지원·육성하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나아가 사회 비판과 성찰,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주요어: 지역 문화예술교육, 부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회적 역할, 공적 혜택, 커뮤니티 기반 문화예술교육

## 1. 서론

2000년대 이전만 해도 ‘문화예술교육’은 문화 교육, 문화 나눔, 예술 체험과 강습과 같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통용되었다. 주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 문화기관을 중심으로 강연, 강습과 체험, 공연 및 전시 해설, 기능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2003년 4월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행정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행정 혁신위원회를 설립한 이래 문화예술교육은 ‘정책 대상’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민관 합동으로 설립한 문화행정혁신위원회에서는 문화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같은 해 6월, 문화예술교육 전담 TF팀<sup>1)</sup>을 구성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 이를 전담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설립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2009

1) 2003년 정식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예술교육과로 변경되었다.

년 서울, 강원, 제주 등 3곳에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지정하기 시작하여 현재 17개 시도에서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sup>2)</sup>

부산 지역센터는 2010년 설립하였다. 별도의 기관을 설립했다기보다는 부산문화재단 조직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생활문화본부 문화교육팀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지역센터의 사정은 전국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각 지역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사업 예산과 규모가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단체와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질적 양적으로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사업 모형이 뚜렷한 지역적 특성을 담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는 2019년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일정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사업비 재편이 그것이다. 즉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이하 꿈다락 사업)과 같은 개별 문화예술교육 사업비 대신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비를 새롭게 편성한 것이다. 이는 일정한 지역적 독자성과 특성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여기에 최근의 급격한 사회변동이 새로운 과제로 부가되었다. 기술혁신에 따라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욕구가 전에 없이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화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소비패턴 또한 급격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과 더불어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사회 참여 욕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성계발, 정서함양, 창의력 신장 등 지금껏 문화예술교육이 전통적으로 지향해 온 가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진단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이제껏 지

2) 진흥원과 협력체계를 통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일부 센터 제외),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역할 분담과 관계 설정에서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존재한다.

역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사업 추진체계와 교육계획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센터에서 발간하는 결과자료집을 제외하면 사업 실태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결과자료집 역시 지역센터 추진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역에서 시행된 진흥원 사업이나 문체부의 예술감상 교육 등의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19년 부산 꿈다락 사업의 운영 실태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sup>3)</sup> 부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는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전반적인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뜻깊은 관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 2.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1)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변화와 지원 규모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지금껏 6건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200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안(2010), 문화예술교육 발전 방안(2010),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2014),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 등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

3) 필자가 연구진으로 참여한 「2019 부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부산문화재단, 2019)는 부산 꿈다락 사업 운영 실태를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표 1> 문화예술교육 종합 발전계획의 흐름(2004~2018)

구분	주체	비전	목표	중점과제(추진전략)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2004.11)	문화관광부, 교육부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사회의 문화 역량 강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다양화 및 기회 확대,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여건 마련	개개인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국민 인식 제고,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 지원, 사회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과 상호 연계를 통한 인프라 구축,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체계적 정책 수행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 2007~2010 (2007.6)	문화관광부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 역량 강화	문화의 세기, 문화시민 역량 배양	참여기회 확대 및 내실화 사회적 소수자 문화적 권리 신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식정보 확충 및 국제적 위상 확보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방안 (2010.7)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예술을 통한 창의·인성 교육 강화		교과활동에서의 예술교육화(공동), 학교-지역사회 연계형 체험예술교육 강화(교과부), 예술·체육 중점학교 활성화 및 확대(교과부), 각급 교육기관 예술심화교육 지원 확대(교과부), 과학-예술 통합교육 실시(교과부), 예술교육지원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공동)
문화예술교육 발전 방안 (201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의 평생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	문화예술교육 정책 대상을 학생, 취약 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학교-지역사회 연계 지원 체제 강화 예술강사 전문역량 강화	문화예술교육 정책 대상을 학생, 취약계층 → 전 국민으로 확대 ① 시민 문화 예술학교 지정·운영, ② 문화예술교육 동아리 지원, ③ 문화예술교육 바우처 제도 도입, ④ 예술을 통한 사회 통합 및 치유 프로그램 확대, 학교-지역사회 연계 지원 체제 강화, ⑤ 학교 밖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체제 구축, ⑥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전략적 확대, ⑦ 초·중등학교 문화예술 교육 확대, 예술강사 전문역량 강화, ⑧ 예술강사 학점형 상시 연수 체제 도입

구분	주체	비전	목표	중점과제(추진전략)
문화예술교육 증장기 발전 계획 (2014.2)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소통과 공감, 함께 나누는 행복	'행복'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의 일상화 '상생'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의 지역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의 내실화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②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문화사각 지대 해소, ③ 문화복지 구현을 위 한 생활밀착형 예술교육—문화예 술교육의 지역화, ④ 지역 중심의 프로그램 확충, ⑤ 문화예술교육 전 달체계 개선, 문화예술교육의 내실 화, 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⑦ 문화예술교육 연구 기 능 확충, ⑧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 (2018.1)	문화체육 관광부	삶과 함께 하는 문화 예술교육	문화예술 교육의 재도약 :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성장과 질적 제고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①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 계화, ②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지원과의 연계 강화, ③ 문화예 술교육 협력망 활성화—수요자 중 심 교육 다각화, ④ 생애주기별 맞 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⑤ 소외계 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속 확대, ⑥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문화 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⑦ 기획 및 연구 역량 강화, ⑧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⑨ 문화예술교 육 국제교류 활성화, ⑩ 가치 확산 및 홍보 강화

참여정부(2004, 2007)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 역량 강화를, 이명박 정부(2010)는 예술을 통한 창의·인성 교육 강화와 국민의 평생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을, 박근혜 정부(2014)는 행복, 소통, 공감을 중점적으로 추구하였다. 문재인 정부(2018)는 삶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을 강조하고 있다.<sup>4)</sup> 특히 기존에 수행해 왔던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공급자·중

4) 이순욱 외 여럿, 「2018 부산 문화예술교육 종합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부산문화재단, 2018, 9쪽.

양 주도적 정책의 한계, 문화예술교육의 수요 파악 미흡, 질적 관리 부족,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미흡 등을 꼽고 있으며, 지역분권화, 수요특성화, 지역기반 생태계 구축,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등의 용어를 적시함으로써 사실상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sup>5)</sup>

문화예술교육의 사업 규모는 사업 전담기관인 진흥원의 예산으로 가능해 볼 수 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은 <표 2>와 같다.<sup>6)</sup>

<표 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산(2005~2020)

(단위 : 백만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예산총액	8,400	16,469	22,421	27,498	61,243	66,622	65,624	79,873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총액	109,739	115,224	119,207	130,447	132,578	129,998	121,735	129,660

84억원으로 시작한 진흥원의 예산총액은 201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약 154% 증가했다.<sup>7)</sup> 수혜자 수를 통해서도 사업 규모를 살펴볼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수혜자 수는 300만명으로, 2005년 71만 명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영역의 수혜자 수가 289만 명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이 11만 명으로 전체의 4%를 차지한다. 그러나 증가 폭은 학교 영역이 4.1배인 데 비해, 사회 영역은 648배 증가하였다. 교육 수혜 기관은

5) 위의 글, 1쪽.

6) 2006년부터 2018년까지는 진흥원이 발간하는 「연차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2019년과 2020년은 문체부 예산각목명세서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64억원 정도의 진흥원 지원금은 제외한 문화예술교육지원 항목의 예산액이다.

7) 특히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예산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따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문체부 산하의 일자리 사업으로 편제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문체부 예산 외 약 251억원의 지방교육재정이 추가로 편성되었으며, 문체부 자체의 예술강사 지원 예산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을 기준으로 볼 때 진흥원 예산 가운데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9%를 차지한다. 이순욱 외 여럿, 앞의 글, 12쪽.

총 11,900개 학교 및 시설로, 2005년 3,220개에서 11,900개로 3.7배 증가하였다. 그중 학교 영역이 9,385개로 79%를 차지하고, 사회 영역은 2,515개로 21%를 차지한다. 예술강사는 학교 5,357명, 복지관 500명 등 총 8,100명이 배치되었고, 학교 예술강사는 2005년 1,628명에서 5,357명으로 3.3배 증가하였다.<sup>8)</sup>

부산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역시 국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한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문화예술기관이나 유관단체, 협회 주관으로 일반적·포괄적 범주의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였다. 부산문화예술교육 연표<sup>9)</sup>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부산대, 신라대 산하 연구소를 비롯하여 다수의 민간 예술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진행되었다. 정책 용어로서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으며, 당시 부산의 문화도시·창조도시라는 정책 기조와 맞물려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도 '1학교 1문화예술교육' 정책과 학교문화예술교육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였다.<sup>10)</sup> 2010년 부산문화재단에 부산 지역 센터가 설립되면서 진흥원 사업들이 지역센터로 이관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지역센터 차원의 독자적인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예산 현황은 <표 3>과 같다.<sup>11)</sup>

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2018, 5쪽.

9) 김희재 외 여럿, 「부산문화예술교육 10년사 연구」, 부산문화재단, 2014, 8~9쪽.

10)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 기조와 사업 현황은 「2016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2018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1) 이순욱 외 여럿, 앞의 글, 15~16쪽.



〈표 3〉 부산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연도				재원		
	2015	2016	2017	2018	국비	시비	자체
독서인문학	-	-	70,000	40,000		○	
도시철도 북하우스	130,000	130,000	130,000	130,000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300,000	300,000	300,000	300,000	○	○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1,858,237	1,833,881	855,740	855,740	○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912,000	1,824,000	1,642,000	1,642,000	○	○	
어린이 무형문화재교실	70,000	70,000	70,000	70,000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294,000	294,000	294,000	294,000	○	○	
지역 출판 활성화	50,000	50,000	-	-		○	
지역 인문학 활성화	30,000	30,000	-	-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2,389,638	2,488,500	-	-	○	○	

## 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개념과 사업

2011년 7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이어서 2012년 3월 초중고 주 5일 수업제가 시작되었다. 가파른 성장을 목표로 질주하던 시대를 벗어나 본격적인 여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아울러 인간의 기대 수명이 100세를 넘어 120세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 공동의 문제가 되었다. 여가의 질은 곧 전 생애주기에 걸친 삶의 질과 연관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꿈다락 사업은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sup>12)</sup> 어린이·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소양 함양과 또래

1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은 크게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양분된다. 전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지칭한다. 반면, 후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등 문화예술교육시설과 문화예술교육단체,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간, 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 조성을 목표로 2012년부터 실시하여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었다. 2012년 151개 기관, 151개 프로그램, 참여자 9,886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18년 808개 기관, 895개 프로그램, 참여자 66,261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연도별 성과는 <표 4>와 같다.<sup>13)</sup>

<표 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연도별 사업성과

구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프로그램 수	151	623	920	900	1,055	1,035	895
기관 수	151	532	760	860	960	912	808
참여자 수	9,886	51,122	80,000	68,000	70,000	75,652	66,261

2012년에는 국공립기관연계사업, 지역센터 연계사업 두 가지 유형으로 시행되었다. 진흥원은 2013년부터 국공립기관 연계사업을 포함하여 자체 기획사업 6개를 시행하였으며 문체부도 예술감상교육을 비롯한 별도의 기획사업 3개를 추진하였다. 2019년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지역센터 연계사업, 진흥원사업, 문체부 사업이다. 지역센터 연계사업은 각 지역센터에서 지역의 여건과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진흥원사업은 ‘가족 오케스트라-합창’,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꼬마작곡가’, ‘일상의 작가’ 등의 9개 사업이 추진되었다.<sup>14)</sup> 문체부 사업으로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예술감상교육이 실시되었다. 주관기관에 따른 연도별 세부사업의 변화 과정은 <표 5>와 같다.<sup>15)</sup>

1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http://www.toyo.or.kr/about/history/>(검색일: 2019.11.23.)

14) 꿈다락 사업의 변화 방침에 따라 진흥원 사업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다. 2020년에는 ‘주말예술캠퍼스’,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일상의 작가’, ‘꼬마작곡가’, ‘가족 여가’, ‘드림 아트랩 4.0’ 등 6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홈페이지 <http://www.toyo.or.kr/about/organization/view/51/>(검색일: 2020.01.12.)

15) 남영희 외 여럿, 「2019 부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부산문화재단, 2019, 12쪽.

〈표 5〉 주관기관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현황(2012~20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주관기관	사업명	개수 코드	2	10	11	13	13	13	13	11
국공립기관 연계사업		A	○	to D-1	-	-	-	-	-	-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연계사업	지역센터 연계	B	○	○	○	○	○	○	○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사업	예술감상교육	C-1		○	○	○	○	○	○	○
	토요건축문화학교	C-2		○	○	폐지	-	-	-	-
	토요미디어문화학교	C-3		○	○	폐지	-	-	-	-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기획사업	국공립기관 연계사업	D-1		○	○	○	○	○	○	○
	가족오케스트라	D-2		○	to D-3	-	-	-	-	-
	가족오케스트라-합창	D-3			○	○	○	○	○	○
	미술감상교육	D-4			○	to D-5	-	-	-	-
	미술관 연계	D-5				○	○	○	○	폐지
	도서관 연계	D-6		○	○	○	○	○	폐지	-
	박물관 연계	D-7			○	○	○	○	○	폐지
	주말문화여행	D-8		○	○	○	○	○	○	폐지
	청소년문화예술진로 탐색	D-9		○	○	○	○	to D-10	-	-
	청소년 x 예술가 프로그램	D-10						○	○	폐지
	해외우수프로그램연계	D-11		○	폐지	-	-	-	-	-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D-12				○	○	○	○	○
	꼬마작곡가	D-13				○	○	○	○	○
	아리랑	D-14				○	○	폐지	-	-
	건축문화프로그램	D-15				○	○	○	○	○
	주말예술캠퍼스 프로그램	D-16						○	○	○
	일상의 작가 프로그램	D-17							○	○
	가족여가프로그램 개발연구	D-18								○
	4차산업혁명관련 프로그램	D-19								○

지역센터 연계형 사업은 전국 17개 지역센터에서 추진하는 꿈다락 사업이다. 2012년 꿈다락 사업 시작과 동시에 실시되었으며 각 지역별로 고유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형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센터 연계사업의 체계는 <표 6>과 같다.<sup>16)</sup>

<표 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센터 연계사업 체계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문화 예술교육 진흥원	지자체	지역센터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관 및 단체	참여자
기본계획 수립·통보					
	사업 전반 운영·관리				
국고 교부	지방보조금 마련, 지역센터로 국고 교부	사업 운영관리 세부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및 집행	사업 추진	프로그램 참여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지역센터, 문체부가 연계하여 지역 내 문화 예술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기획·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 체계가 복잡하고,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지역적 특성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까닭에 지역별 고유한 문화 예술교육 지형 형성이라는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2019년부터 새로 개편한 예산 체계는 지역센터 연계사업에 일정한 변곡점을 만들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은 <표 7>과 같다.

16) 위의 글, 13쪽.

〈표 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관련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지방비 제외)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 예산				
	2016	2017	2018	2019	2020
토요문화학교운영(기획공모형)	10,687	9,652	9,350	6,193	5,327
토요문화학교운영(지역자율형)	10,000	9,000	9,000	폐지	폐지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13,045	13,045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1,000
계	10,000	9,000	9,000	13,045	19,372

2018년까지 지역센터 연계사업은 토요문화학교운영(지역자율형) 사업 예산으로 추진되었다.<sup>17)</sup> 국고 50%, 지방비 50%로 편성·운영되었으므로 총액은 2배에 달했다. 그런데 2019년에는 기획공모형 사업비가 줄어들고 지역자율형 예산 항목이 폐지되었으며,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비가 새롭게 편성되었다. 2020년에는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사업비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꿈다락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사업 전반에 걸쳐 해당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에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지역분권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와 일정하게 부합한다.<sup>18)</sup>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예산 규모의 증액과 안정을 바탕으로 프로그램과 참여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 이후에는 다소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표 8〉에서 그 성과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sup>19)</sup>

17) 기획공모형 예산은 문체부사업과 진흥원사업 예산이다. 문체부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예술감상교육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26억원, 2019년 19억원이 배정되었다. 진흥원사업은 2018년 67억 5천만원, 2019년 42억 9천만원이다. 2019년 들어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비 증가에 따라 두 사업의 예산은 각각 줄어들었다.

18) 남영희 외 여럿, 앞의 글, 13~14쪽.

19) 위의 글, 14쪽.

〈표 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센터 연계사업 성과(2016~2018)

구분	연도		
	2016	2017	2018
프로그램 수	762개	750개	666개
참여자 수	39,280명	32,223명	31,945명

지역센터 연계사업의 유형은 일반공모, 기획공모, 기획사업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공모는 꿈다락 사업의 기본 취지와 방향성을 토대로 한 프로그램이고, 기획공모는 지역사회의 기관, 시설, 커뮤니티와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 지향, 지역자원과 특성을 고려하는 프로그램이며, 기획사업은 각 지역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3. 부산 문화예술교육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 1) 2017~2019년 사업 현황

부산 지역센터에서 운영하는 부산 꿈다락 사업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추진 중이다. 사업유형은 크게 공모사업(일반공모, 기획공모)과 기획사업 2가지 트랙이다. 공모사업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행단체를 공개 모집한 후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하고,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을 교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기획사업 트랙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인력 연수, 타 기관 탐방, 축제, 네트워크 포럼, 연구 등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산 꿈다락 사업 현황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2017~2019 부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단체 수	50개	56개	41개
참여자 수	2,091	2,130	1,336
예산합계	1,642백만원	1,642백만원	800백만원

2019년 총 예산은 800백만원으로 예년에 비해 50% 정도 줄어든 규모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19년부터 정부 예산이 토요문화학교 운영으로 고정되지 않고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으로 예산 용도가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의 지역 독자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정된 결과라 할 수 있다. 50% 감소는 큰 폭으로 느껴지나 기존 기획사업 유형으로 진행하던 축제, 교육 들의 프로그램이 부산 지역센터의 기본목적사업으로 통합·진행되므로, 단체 교부금은 기존 공모예산의 67%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sup>20)</sup> <표 10>은 2019년 부산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sup>21)</sup>

<표 10> 2019년 부산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 구분	예산		비고
	국비	시비	
		1,006,100	1,006,100
부산 꿈다락 사업	800,000		69.42%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397,000		
공간지원형 문화예술교육	145,000		
지역문화예술교육축제	55,000		
센터 기본목적사업	225,000		11.18%
센터운영비	390,200		19.39%

최근 3년간 프로그램 장르는 국악, 전통,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뮤지컬, 사진, 영상·미디어 등 전통적인 문화예술 장르와 복수 장르가 연계된 통합 분야가 공존하였다. 2019년에는 미술이 12개로 가장 많으며, 연극 8개, 통합 6개(기타 3개 포함) 프로그램이 있다. 사진과 미디어 장르는 각 1개 프로그램으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특징으로는 융합 장르

20) 2018년의 경우, 총 예산 1,642,000천원 가운데 공모사업을 통한 단체 교부금은 1,211,000천원이었다.

21) 남영희 외 여럿, 앞의 글, 46쪽.

의 약진을 엿볼 수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선정된 프로그램의 장르 현황은 <표 11>과 같다. 장르 구분은 각 연도별 사업 결과자료집을 참고하였으며, 2019년의 경우는 최종 선정결과 공지 상의 장르 구분에 따랐다.<sup>22)</sup>

<표 11> 부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선정 장르 현황(2017~2019)

구분	선정 장르										계
	음악	무용	미술	연극	뮤지컬	인문학	사진	미디어 (영상)	전통 예술	통합	
2017	7	4	10	4	3	3	3	3	-	17	54
2018	5	7	17	5	2	1	2	5	4	8	56
2019	2	4	12	8	2	-	1	1	5	9	41
합계	14	15	39	17	7	4	6	9	9	31	151

2019년 부산 꿈다락 사업은 2019년 1~2월에 기획형과 일반형, 5~6월에 인큐베이팅형 공모를 통해 41개 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은 4~11월에 걸쳐 시행되었다. 41개 선정단체 가운데 19개 단체가 2017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되었으며,<sup>23)</sup> 2018년부터 2년 연속 선정된 단체는 9개였다. 그중 7개 단체는 2년 연속 지원사업인 기획형 유형이다. 2017년과 2019년 2년 수행한 단체도 2개 있었다. 프로그램은 3년 동안 동일한 프로그램을 고수하는 형태, 기본 틀을 중심으로 변주하는 형태,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형태로 매우 다양한 편이었다.

2년 연속 수행단체 중 2018년 인큐베이팅형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경험을 축적한 후 2019년 일반형으로 진입한 단체의 약진은 주목할 만한

22) 2019년 프로그램 중 '기타' 장르로 구분된 프로그램은 대체로 다양한 장르를 연계한 프로그램이었다. 복수 장르를 연계한 프로그램이 통합 장르임을 감안할 때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기타' 장르에 속한 프로그램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통합' 장르로 병합하였다. 괄호 안의 숫자는 '기타' 장르의 프로그램 수다. 남영희 외 여럿, 앞의 글, 47쪽.

23) 10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추진해 온 단체도 있으나, 여기서는 2017년부터 3년간만 대상으로 하였다.



현상이다. 인큐베이팅형 지원에서 의도하고자 했던 목적을 잘 구현한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연속 수행 과정을 통해 단체 역량과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지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2년 미만의 신규단체를 지원하는 인큐베이팅형은 2018년에 새롭게 개설된 유형이다. 신규단체 발굴 및 육성이라는 목적을 감안한다면, 2017년 문화예술교육 1~2년차의 신규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던 일반공모 1그룹 유형이 발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2018년에는 일반형 공모 1그룹으로 문화예술교육 경력 3년 미만 단체 33개를 선정했는데, 이 중 15팀이 2019년에도 사업을 수행하였다.<sup>24)</sup> 해를 거듭하며 연속 수행 중인 단체 목록은 <표 12>와 같다.

<표 12> 부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연속 수행단체 현황(2017~2019)

구분	사업 연도	단체 수	단체명
3년 연속	2017-2019	19	문화예술교육연구소 큐브, 부산예술단, 금정청소년수련관, 전문예술법인 남산놀이마당, 부산자연예술인협회, 모이다아트협동조합, 극단 해풍, 세상과 소통하기, 바오마루, (사)문화예술인적자원개발센터, 상상편집소 피플, 문화기획ACTs, DOT미술관, 한국판화예술연구원, 더드림아트센터, (재)고은문화재단, 정미숙무용단, 꿈꾸는 베프, “날아, born” play art center
2년	2018-2019	9	문댄스프로젝트팀, 문화예술조은학교, 피스오브클래식, 도시농업공동체 팜파크, 다다예술교육센터, 사단법인 행복두드림, 피움문화예술교육연구소, 한국휴먼교육개발협동조합, 율파란
	2017, 2019	2	아트커뮤니티센터 라온, 예술장터

지역별로는 동부산과 원도심 지역에 사업이 집중되었다. 특히 부산진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는데, 9개 중 4개 프로그램이 부산시민공원 문화예술촌에서 운영하였다. 지역의 문화자원과 프로그램 개발의 연관성을 포착할 수 있는 지점이다. 반면에 강서구와 영도구 지

24) 남영희 외 여럿, 앞의 글, 50쪽.

역에서는 개설 프로그램이 아예 없다. 지역별 선정 프로그램 수는 <표 13>과 같다.

<표 13> 지역별 선정 프로그램 수

지역		프로그램수	합계
동부산	기장군	2	12
	남구	2	
	수영구	4	
	해운대구	4	
서부산	강서구	0	4
	북구	2	
	사상구	1	
	사하구	1	
원도심	동구	2	16
	부산진구	9	
	서구	2	
	영도구	0	
	중구	3	
북부산	금정구	6	9
	동래구	2	
	연제구	1	
합계		41	

학습참여자는 기본적으로 학령기 어린이와 청소년,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14>는 2019년 부산 꿈다락 사업 프로그램의 수업 대상자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14〉 학습참여 대상자 분포 현황

단체명	초등			중등	고등	가족
	저학년 (1-2학년)	중학년 (3-4학년)	고학년 (5-6학년)			
문화예술교육연구소 큐브						
부산예술단						
금정청소년수련관						
전문예술법인 남산놀이마당						
부산자연예술인협회						
모이다아트협동조합						
극단 해풍						
세상과 소통하기						
문댄스프로젝트팀						
미디어교육연구소						
예술장터						
피스오브클래식						
다원국악관현악단						
도시농업공동체 팍팍크						
다다예술교육센터						
바오마루						
사)문화예술인적자원개발센터						
상상편집소 피플						
사단법인 행복두드림						
문화기획ACTs						
아로새긴						
DOT미술관						
아트커뮤니티센터 라온						
한국판화예술연구원						
더드림아트센터						
(재)고은문화재단						
극단 이야기						
피움문화예술교육연구소						

단체명	초등			중등	고등	가족
	저학년 (1-2학년)	중학년 (3-4학년)	고학년 (5-6학년)			
정미숙무용단						
한국휴먼교육개발협동조합						
꿈꾸는 베프						
스텝아트컴퍼니						
창작극 연구 극단 수진						
울파란						
쓸모있는 일 연구소						
문화예술조은학교						
“날아, born” play art center						
모들						
원도심예술가협동조합 창						
극단 에저또						
송협주판화공방						
합계	20	35	31	7	3	7

총 41개 프로그램 중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39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은 20개, 중학년(3-4학년)은 35개, 고학년(5-6학년)은 31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대체로 초등학교 3-6학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많다. 반면, 중학생은 7개, 고등학생은 3개 프로그램만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중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1개 운영되었으나, 고등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은 초등 전학년 및 중학생을 모두 아우르고 있어 현실적으로 고등학생이 참여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참여대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볼 때 초등학생에 편중되어 있어 꿈다락 사업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사업설명회나 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정 연령대에 편중되

지 않도록 선정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중등학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으나 이들의 수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현재의 공모 방식은 단체가 그들 단체의 교육 콘텐츠에 따라 학습참여 대상이 결정되는데, 중등학생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파악하는 일도 병행할 필요가 있겠다.<sup>25)</sup>

공모유형에 따라 프로그램의 특성이 구분되기도 한다. 기획형은 음악, 전통, 미술, 연극, 미디어 장르의 프로그램이 있다. 부산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기획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주로 지역의 역사, 지역 커뮤니티와 도시재생,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을 주제로 삼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반형 프로그램과 뚜렷한 구분을 찾아보기 어렵거나 지역성을 다소 억지스럽게 연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인큐베이팅형은 지역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고 있는데, 해양도시라는 특성에 부합하여 바다와 관련된 주제가 눈에 띄며, 인권, 평화, 환경과 같은 우리 삶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었다.<sup>26)</sup>

일반형은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담아내는 유형인만큼 대부분의 장르를 포섭하고 있다. 구 단위로 프로그램의 특징을 간략히 서술할 수 있다. 금정구는 전통음악, 무용극을 통한 예술놀이, 다양한 세계음악, 미술작품을 통한 다각적 사고 등 예술 장르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기장군은 지역 인문자연 자산을 활용한 도시농업, 숲 해설, 인문학과 역사 관련 주제를, 남구는 청소년들이 예술교육을 통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동래구는 박물관을 이용한 시간여행, 지역사회 기반의 역사와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 미술 장르를 통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부산진구는 가장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지역으로, 스트릿댄스, 동화 낭독극, 다문화 아동 대상 연극놀이, 지역공동체 기반의 예술창작 놀이, 전래동요와 연극의 융합 프로그램 등 장르와 주제가 다양한 편이다. 북구는 신체 움직임을 매개로 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소통, 사상구는 연극을 통해 우리 동네를 다시 생각해 보는 수업, 사

25) 위의 글, 52쪽.

26) 공모 시 이러한 주제를 제시하였다.

하구는 극화 과정에서 연극놀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수영구에서는 시각예술로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는 수업, 장애인을 바라보는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 배리어프리 개념을 통합예술로 이해하고자 하는 수업을 기획·운영하였다. 연제구에서 1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도시재생에 대한 주제다. 중구는 극장 공간을 활용한 뮤지컬 교육, 미래영상미디어(3D, VR)로 부산의 고유한 지역문화를 표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해운대구는 사진으로 부산의 모습을 담거나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기반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국악의 공동체 의식을 체득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염두에 둔다면 향후 프로그램 개발과 선정 과정에서 16개 구군의 지역적·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점차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는 수업주제뿐만 아니라 참여대상의 영역까지 가로질러 드러날 수 있다. 가령, 부산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동래는 역사문화에 여러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는 조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 지역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지속 가능한 생활밀착형·주민참여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활동, 생활문화형 교육지원사업을 지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키워드가 ‘일반인, 주민, 생활문화, 공동체’라면, 꿈다락 사업은 ‘어린이, 청소년, 주말, 여가, 문화예술소양, 가족 간 소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두 사업의 구분이 모호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울러 문화예술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을 발굴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향유권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2019년의 경우 일반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만큼 다양한 계층의 사회구성원을 담아낼 수 있는 수업으로 경계를 넓혀야 하며, 이러한 고민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27)</sup>

## 2) 2019년 운영실태

2019년 부산 꿈다락 사업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학습자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수행단체 만족도 조사, 개별 꿈다락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sup>28)</sup>

첫째, 학습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에 응한 학습자는 총 407명으로 초등 1~3학년(7~10세)이 147명, 초등 4~6학년(11~13세) 197명, 중고등학생(14~18세) 33명, 학부모 30명이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84.5%가 초등학생이었다. 수업만족도, 강사만족도, 수업 추천 의지라는 각 항목에 대해 참여자 만족도는 평균 4.7점(5점 만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연령별로는 학부모와 중고등학생의 만족도가 초등학생에 비해 조금 더 높은 편이었으며, 개별 항목 중에서는 ‘타인 추천 의사’가 초등 1-3학년 집단에서 다소 낮게(4.4점) 나타났다.

프로그램이 가족관계 개선, 또래 집단 이해, 자기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쳤다고 여기는지, 또 문화예술 및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평균 4.5점으로 역시 ‘매우 그렇다’에 가까운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가족관계 개선, 표현력과 상상력 계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의 증대 정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학부모의 만족도(4.8점 이상)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능과 적성 찾는 계기, 지역에 대한 관심 정도는 중고등학생 응답자(4.7점 이상)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수업만족도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통한 효과에 가장 만족하는 집단은 학부모와 중고등학생이었고, 만족 정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초등 1~3학년생이었다.

학습자가 꿈다락 프로그램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 조사하였으나, 주관식으로 서술된 전체 267건의 응답 중에서 87.3%가 수업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불만 및 개선 요구사항은 12.7%에 불과했는데,

27) 남영희 외 여럿, 앞의 글, 53쪽.

28) 조사 기간은 2019년 8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으며, 수업에 참관한 전문위원(김원명, 정성대 교수 외 10명)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학습자 만족도 조사는 응답자 507명 가운데 407건, 프로그램 수행단체 만족도 조사는 수행단체 41개 중 응답한 32개 단체를 대상으로 연구진에서 실태를 분석하였다. 위의 글, 55~96쪽 참고.

개선 및 건의사항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야외수업이 확대되면 좋겠다’는 것이었으며, 다음으로는 토요일 아침이라는 현재 수업시간의 변경요구 > 수업시간 단축요구 > 중고등학생 프로그램 확대 요구 순이었다.

학습자들은 부산 꿈다락 사업을 어떤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 )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모두 158건이었는데, 그 중 “토요일에 아침밥도 못 먹게 하는 프로젝트”,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이라는 부정응답 2건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꿈다락 프로그램을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과 같은 긍정적 수식어로 표현하고 있었다. 158건의 응답 중, 단순한 긍정 표현(재미있다, 즐거움, 신나는 곳 등)과 나름의 상징적 추상적 표현(브로드웨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 자유로운 노래방 등)을 제외한 75건의 응답에 대해 핵심 키워드를 조사한 결과, 부산 꿈다락 사업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수식되는 ‘학교’와 같은 배움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가장 강했으며, 다음으로 추억 > 놀이 > 상상 > 체험 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는 41개 프로그램 중 39개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을 주요 학습자로 삼고 있으며, 특히 초등저학년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답 결과에 대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80% 이상이 긍정적 응답으로 채워진 주관식 응답 결과는 학습자 대부분이 부산 꿈다락 사업에 만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둘째, 프로그램 수행단체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41개 단체 중 32개 단체가 조사에 응하였다. 부산 꿈다락 사업이 각 단체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부산 꿈다락 사업과 해당 단체의 지향가치가 연결되어 있는가, 부산 꿈다락 사업이 해당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가, 부산 꿈다락 사업을 통해 재정이 개선되었는가, 부산 꿈다락 사업으로 다른 단체와 네트워킹이 활발해졌는가라는 4개 영역의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재정개선’ 항목으로(4.8점/5점 만점) 꿈다락 사업이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재정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든 항목에서 대체로 4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업이 단체의 다른 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가?”와 “사업을 통해 단체의 역량과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각 3.4점과 3.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부산 꿈다락 사업에 여러 차례 참여한 단체와 처음 참여한 단체 사이에 만족도가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2019년 처음 사업에 참여한 신규 단체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2~3년 연속 참여단체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은 2년째 사업에 참여 중인 단체들이었다. 다만 ‘재정개선’ 항목에서는 3년 연속 참여 단체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4.9점)

단체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주관처인 부산문화재단에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지를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단체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문제는 ‘예산사용’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다음으로는 ‘참여자 모집과 관리’, ‘강사’, ‘역량강화’, ‘운영과정’ 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가 겪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핵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인건비 증액 및 예산의 세부적 구성에서 자율성 확보 요구
- 예산집행의 융통성 확보 및 정산시스템(절차) 개선 희망
- 매년 사업 일정이 미리 고지되고, 사업 시작 시기를 현행보다 앞당겨지길 희망
- 공모 단체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기준 제시 및 공개를 통해 탈락 단체가 피드백을 통해 성장하는 계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부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실시 시기와 대상을 세분화할 것
- 프로그램 홍보와 교육공간 확보에 부산문화재단이 컨트롤타워로 기능해 주길 희망
- 주말 오전 수업의 한계와 출결관리의 어려움 해소
- 강사 구성의 자율성 및 신규강사 육성 프로그램 필요

이는 개별 단체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이자 개선방안으로, 향후 주관처인 부산문화재단과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단체

스스로의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고민들과 부산 꿈다락 사업 전체의 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함께 언급하고 있었다.

셋째, 개별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단체가 각 항목을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만족하고 있었다(‘양호’ 수준). 반면에 몇몇 항목에서는 많은 단체들이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상태(‘미흡’ 수준)라는 점 또한 발견되었는데, 특히 ‘출석관리’, ‘강사의 역할’,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내용’인가 하는 부분과 ‘안전성 관리’라는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프로그램의 수업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영역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29)</sup>

‘교육과정 운영’은 전반적으로 꿈다락 사업의 기본 운영 기초를 성실히 따르고 있었다. 사업계획서상의 목적과 주제, 프로그램 실행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수업 일정 역시 태풍과 같이 학습자의 안전과 직결되어 조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큰 변경 없이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출석관리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교육주제와 방법’에서는 사업계획서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수업 참관 해당 차시에는 주제와 메시지의 명확성,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방법 활용이라는 부분에서 좋지 못한 리뷰를 받은 단체들이 많았다. 이는 부산 꿈다락 사업의 질적 안정성이나 사업 정체성 유지와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무난한 수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단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이 알맞지 않다거나 너무 많은 주제와 예술적 표현 방법을 배치하여 본래의 목적이 흐려지는 경우는 프로그램 구성과 방법론을 재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강사진 구성과 역할’에서는 강사진 간 효과적인 팀워크와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유도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무난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보조강사 역할의 적절성은 다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보조강사는 수업이

29)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이 실제 수업 현장을 참관하여 교육과정 운영, 교수 주제와 방법, 강사진의 역할, 학습 내용, 교육환경과 안전관리, 지역 특성(기획형에만 적용)이라는 6개 영역 24개 항목 정성평가 지표에 따라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브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학습자들의 창의적 활동을 적극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강사진 간의 사전회의를 통해 보조강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학습내용’ 부분에서는 어린이·청소년, 가족 활동으로서의 적합성,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가 중심이 된 학습 내용 등은 그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존재하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실현되고 있었다. 다만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청소년기’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환경과 안전 관리’는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을 위한 전용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프로그램의 주제와 성격에 따라 다른 목적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교육공간의 규모와 환경, 기자재·교보재의 적절한 활용에 대한 측면은 적절하다는 평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하지만 학습자 수에 비해 교육공간이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는 경우들이 있었다. 안전 관리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으로 대부분 단체가 종합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사후대처에 앞서 응급상황 발생 당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몇몇 단체에서는 강사진이 응급처치 자격을 이수한 단체도 있었다. 학습자 대부분이 어린이라는 점에서 안전 관리는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지역특성’은 ‘기획형’ 사업에만 따로 적용한 지표이다. 부산의 지역성이 반영된 주제 선정, 지역 자원 활용 노력은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기관 및 커뮤니티와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활동과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개선될 필요가 있었다.

부산 꿈다락 사업 프로그램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차적으로 꿈다락 사업 지원 활동 대부분은 사업의 한 축인 ‘개별 프로그램 수행단체’에 치중되어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꿈다락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수혜 대상자’라는 지위에 놓고, 이들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고 여겨진다. 사업뿐만 아니라 문체부의 지역센터에 대한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와 지역의 정책은 정책대상자를 단순히 ‘수혜자’로서 분류하고 진행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꿈다락 지역센터 연계사업에서도 학습자와 수행단체를 정책의 수혜자로 바라보고 “지역 내 문화예술 교육단체를 공정하게 선발하고 그들의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예산을 지원하면, 해당 단체로부터 교수 받는 아동·청소년들의 수업의 질도 높아지고 만족감도 커질 것”이라는 일방향성 프로세스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실무적 서포트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사업 파트너로서 단체의 입장과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수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간 수행단체 지원에 치중했던 구조에서 벗어나 학습자 역시 문화예술교육사업의 또 다른 파트너로 고려해야 한다.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습자는 경험한 교육내용에 만족하는지, 내용과 수준 등은 학습자에게 적합했는지, 토요일마다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어린이·청소년의 성장과 그들의 가족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주고 있는지를 ‘학습자’ 입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센터 연계사업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더 부족했다고 하겠다.

### 3) 시사점

부산 꿈다락 사업 사례 분석을 지역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업의 비전과 목적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꿈다락 사업의 경우, 2012년 중앙 정부에서 제시한 사업 목적과 가치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목적과 가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그렇지 않다면 지역의 요구와 특성에 어떻게 부합할 것인지, 변화한 시대에 맞게 변주할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지역연계형 사업이 아닌 부산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발견하고 확보해 나가야 한다.

둘째, 사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먼저 컨트롤타워로서의 행정지

원 체계가 필요하다. 현행과 같이 부산문화재단 내부 부서의 인력과 행정 지원으로서는 한계가 자명하다.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독자적인 행정지원 체계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을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다. 아울러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교육에 기초적인 인프라와 콘텐츠를 갖추고 있는 기관들과 새로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주력해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 편리한 프로그램, 특정한 연령층에 편중된 프로그램을 중복 지원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조부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일도 시급하다.<sup>30)</sup>

넷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의 지속적인 육성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단체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단계별, 목적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업 실재에 입각한 모니터링 및 평가와 환류 시스템 역시 이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sup>31)</sup>

#### 4.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두루 알다시피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문체부, 지역센터, 진흥원을 통해 추진되어 왔다. 꿈다락 사업과 같이 지역센터 연계사업의 경우, 기존의 추진체계 위에 지자체, 지역 문화예술(교육)단체나 기관이 함께 하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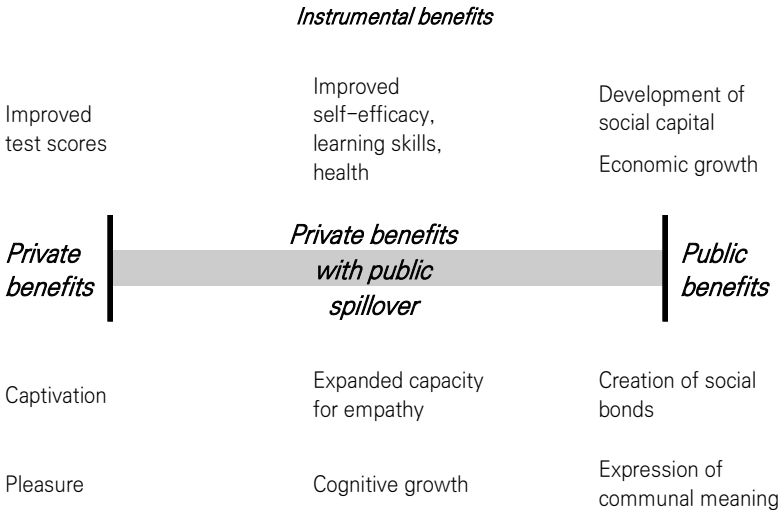
30) 진흥원에서는 2018년 4차 산업혁명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2019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2019년에는 가족 여가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부산 하면 으레 해양, 바다와 같은 상투적인 키워드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어떤 이슈를 환기할 것인지 발견하고 결정하는 일에도 합의가 필요하다.

31) 남영희 외 여럿, 앞의 글, 104~105쪽.

다. 그동안 지역센터 연계사업이 일정한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데는 이처럼 복잡하고 밀도가 떨어지는 추진체계가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꿈다락 사업의 경우, 2019년 예산에 사업의 구체적인 명칭을 없애고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였으며, 2020년에는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명목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기도 했다. 이는 꿈다락 사업을 비롯해 문화예술교육 사업 전반에 지역적 독자성 확보가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시사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업의 지역화 문제가 최근 전환을 맞게 된 것은 급속한 사회 변화와 더불어 문화예술의 지형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과 직결되는 문제다.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의 가치는 과거와 크게 다르다. 과거에는 문화예술의 본질적·미적·절대적 가치가 중요했다면, 오늘날에는 문화예술의 사회적·실용적·상대적 가치가 중요해졌다. 수월성과 독창성보다는 보편성과 다양성이 중시되며, 창작자에서 관객으로 흐르는 일방성도 창작자와 수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자리를 내주었다. 공식적인 문화기구나 기관, 제도보다는 비공식적 사회단체나 시민조직이 더 중요해졌으며 만들어진 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를 추구하기보다는 문화 제작과 체험 등 직접 참여하고 창작하는 기회를 더 중시한다. 자연히 전문가나 엘리트 중심에서 비전문가로 중심이 이동했다. 요컨대 세계를 반영한다고 여겨졌던 문화예술의 의미 역시 사건과 배치로서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고 예술의 자율성보다는 사회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에 더 주목하게 된 것이다. 케빈 맥카시 외 여럿이 제시한 '예술의 혜택 이해를 위한 프레임워크'는 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sup>32)</sup>

32) Kevin F. McCarthy · Elizabeth H. Ondaatje · Laura Zakaras, *Gifts of the Muse: Reframing the Debate About the Benefits of the Arts*, Santa Monica: The Rand Corporation, 2004, p.4. 이 글은 예술의 광범위한 효과(도구적 혜택, 본질적 혜택)에 대한 연구로, 다양한 예술 참여가 개인과 대중(공동체, 사회 전체)에 어떤 혜택을 발생시키는 지 조사하여 이러한 효과를 최대한 확산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Intrinsic benefits*

〈그림 1〉 예술의 혜택 이해를 위한 프레임워크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Benefits of the Arts)

〈그림 1〉의 프레임워크는 예술의 혜택을 도구적 혜택과 본질적 혜택으로 구분하고 이를 사적 영역, 사적 영역이 공적으로 스페일오버(spillover)하는 영역, 공적 영역에서 어떤 효과를 제공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적 혜택에는 성적 향상(도구적)과 매료, 즐거움(본질적)이, 공적 혜택에는 사회적 자본 개발과 경제성장(도구적), 사회적 유대감 창출과 공동체적 의미의 표현(본질적)이 있다. 자기효능감, 학습능력, 건강 향상(도구적)을 추구할 수 있으며, 공감능력과 인식도 향상(본질적)되는 효과는 사적 영역이 공적으로 스페일오버되는 영역의 혜택이다.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일은 일차적으로 개인적인 즐거움을 선사하여 사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바탕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누적될 때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강화되고 세계를 인식하는 능력이 신장된다. 이는 다원주의 사회에 필요한 덕목을 갖춘 시민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사적 혜택

이 공적 영역으로 스피로버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스피로버 지점은 다시 사회적 유대감 창출, 공동체적 의미 표현이라는 공적 혜택으로 크게 확장된다. 문화예술은 도구적이든 본질적이든 그 혜택이 사적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영역에까지 두루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적 혜택, 사적 혜택의 공적 스피로버, 공적 혜택으로 구분하여 문화예술의 도구적 혜택과 본질적 혜택을 고찰한 것은 오늘날 문화예술교육의 현실과 지향을 이해하는 데 시사점이 적지 않다. 최근 지역센터나 진흥원에서 제안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취지를 살펴보면, 이러한 다양한 영역의 혜택을 두루 아울러 사업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이러한 가치와는 달리 사적 혜택의 추구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다. 이제 사적 혜택을 바탕으로 공적 혜택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가를 자문해야 할 시기다. 문화예술교육은 사적 혜택을 넘어 사적 혜택의 공적 스피로버와 공적 혜택을 추구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독특한 정책적 개념이다. 미적 체험이나 예술적 표현, 창의성과 감성 등을 강조하는 예술교육과 인간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성찰적 이해, 문화 다양성과 소통, 개인과 사회의 연계에 관심을 두는 문화교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면서도 서로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 즉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내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정책 개념인 셈이다.<sup>33)</sup>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문화예술교육의 혜택 체계 역시 <그림 1>의 프레임워크와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의 사적 혜택이 공적 영역으로 스피로버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사례를 살펴볼 때 지금껏 지역의 문화예술

33) 문화예술교육은 미적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여가교육, 매체교육, 문화적 문해교육 등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교육 영역들이 특정한 지향, 곧 개인의 미적, 창의적, 성찰적, 소통적 역량들을 북돋워 줌으로써 개인 자신의 발전과 성숙은 물론, 사회의 문화적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지향 속에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세훈 외 여럿, 「문화예술교육 증장기 발전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15~16쪽; 현재 문화예술교육은 형태상으로는 예술교육(예술을 교육 내용(소재)으로 함)에 가깝지만, 내용상으로는 문화교육(사회적 소통, 공감)을 지향한다. 조현성, 「문화예술교육정책 증장기 추진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44쪽.



교육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학습자와 사업을 수행하는 공급자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고 도모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었다. 사업의 성과 역시 사업 수행단체 수와 참여 학습자 수를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단순한 양적 팽창이 문화예술교육 성과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들 숫자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데 적지 않은 행정력과 에너지가 동원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수행단체의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 역시 컸다. 무엇보다 사업 혜택이 해당 참여자와 수행단체에만 국한되어 확장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간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사적 혜택 추구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문화예술교육의 공적 혜택으로 볼 수 있을 사회적 역할 측면에는 지나치게 단순하게 접근한 측면이 있다. 즉 지역형 프로그램 확보를 강조하고 지역 문화자원 활용을 주제로 제시했지만, 이들 주제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한 사례가 적고 때로는 억지스러운 결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였다.<sup>34)</sup>

그렇다면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공적 혜택으로 어떠한 이니셔티브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김인설은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효과는 공정(fairness) 개념을 기저로 하는 지배주의적 사회정의이론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평등을 기저로 하되 다원주의적 사회정의론이 강조하는 시민우의(civic friendship)의 필수조건인 타인에 대한 관심, 이해, 소통, 배려, 관용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음을 강조했다.<sup>35)</sup> 이러한 주제는 현재 커뮤니티 기반 예술(community-based art)과 예술기반 행동연구(art-based action research)를 통해 활발한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커뮤니티 기반 예술은 커뮤니티를 ‘위한’ 예술, 커뮤니티와 ‘함께 하는’ 예술, 커뮤니티에 ‘의한’ 예술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 내에 살고 있

34) 2019년 부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인큐베이팅 사업에는 교육 주제로 인권, 평화, 환경 또는 지역사회가 마주한 사회적 이슈를 선택하도록 제시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목적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35) 김인설,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방향을 위한 탐색적 연구: 다원주의적 사회정의이론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제24권, 한국문화사회학회, 2017, 80쪽.

는 구성원들이 제작한 작품이나 활동, 그리고 공통의 우려나 이슈, 공유하고 있는 문화유산과 전통 등 공통 관심사와 관련한 작품 및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미국의 설치 미술가 로만 데 살보(Roman De Salvo)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의 내셔널 시티(National city)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독특한 자전거 거치대를 디자인하고 제작한 사례, 지역사회 기반 커뮤니티 댄스 프로그램 효과 연구,<sup>36)</sup> 커뮤니티 중심의 미술교육 연구<sup>37)</sup>를 비롯해 국내외 미술, 무용,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술기반 행동연구는 예술을 촉매제로 사용하는 행동연구 전략을 말한다. 예술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며 다양한 형태의 예술로 자신의 경험을 실제로 표현·제작하도록 한다. 이때 예술은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구하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해 관계자나 구성원이 예술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연구 대상이나 결과물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전통적인 질적 연구를 통해서만 전달되지 않는 암묵적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고 변혁적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둔다. 에세이나 시, 소설 등 글쓰기, 노래 부르기, 그림, 사진, 조각 등 시각 미술 활동, 영화와 영상물 제작 등 다양한 장르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예술기반 행동연구 역시 국내외의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에서 연구와 실천이 활발하다.<sup>38)</sup>

이런 점에서 이제껏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실천하는 주체로 ‘가르치는 예술가(Teaching Artist)’를 강조해 왔다면, 이제는 ‘지역사회 기반 활동 예술가(Community-based action Artis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기반 활동 예술가는 단순히 지역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예술가를 지칭하

36) 홍애령, 「지역사회 기반 커뮤니티 댄스 프로그램 <몸짓교실> 사례연구: 교육효과 및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8권 5호, 한국체육학회, 2019, 189~200쪽.

37) 고미라·정현일, 「커뮤니티 중심의 미술교육이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기초조형학연구』 제18권 6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17, 15~26쪽.

38) 최정남, 「노년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예술기반 실행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2018; 김인설, 「사회자본 증진을 위한 촉매로서의 예술」, 『문화정책논총』 27-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121~142쪽.

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을 통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예술가를 말한다. 이들은 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 사적 혜택을 넘어 그 혜택을 공적으로 스피로버함으로써 공적 혜택을 추구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주체다. 지역과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는 지역에 필요한 이들 예술가의 인식과 실천으로 그 본질에 맞닿을 것이다.

요컨대 향후 지역 문화예술교육은 프로그램 수행단체와 학습참여자의 사적 혜택뿐만 아니라 공적 혜택을 확장하는 사회적 기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타인에 대한 관심, 이해, 소통, 배려, 관용 등 다원주의 시대에 필요한 시민우의를 폭넓게 형성할 수 있는 덕목을 이니셔티브로 설정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그러한 활동을 추진하는 예술가를 육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5. 결론

문화예술이 왜 교육과 결합해야 하는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미처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정책대상이 되었고 이미 일정한 개념을 형성한 단계에 이르렀다. 더욱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문화예술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기침체 극복, 사회통합, 도시재생, 국민의 자긍심 고취, 국가 홍보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역시 양극화, 고령화, 과잉경쟁과 사회 갈등의 심화, 가족해체, 고용불안 등의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 지점에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논하기란 새삼스럽다. 그런데도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교육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에는 분명하다. 지역의 경우 여기에 더하여 지역적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교육

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탐색해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변화와 예산 규모를 개관한 다음 2019년 부산 꿈다락 사업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고자 했다. 문화민주주의 시대에 문화예술의 전통적인 개념과 가치, 문화생산자와 소비자의 위상, 향유방식 들도 사회변화만큼이나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문화지형의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독특한 정책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적 체험, 예술적 표현, 창의성과 감성 들과 연관한 예술교육 영역과 인간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 문화 다양성, 소통 및 개인과 사회의 연계에 관심을 두는 문화교육 영역이 교차된 개념으로, 개인의 내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장을 함께 추구한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및 진흥원 설립과 더불어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 무렵까지 일정한 규모의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역별 고유한 문화예술지형을 형성하지 못하고 지역정체성이나 지역가치 발굴에 이바지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지역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개발 사업보다는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확보로 정책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독자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셈이다.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19년 부산 꿈다락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로 선정된 41개 프로그램과 수행단체, 학습참여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부산 꿈다락 사업의 비전과 목적 재설정, 사업 기반 강화,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단체의 지속적인 육성 및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더 근본

적으로는 이 시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일정한 변곡점에 도달한 이유를 급속한 사회 변화의 맥락 속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케빈 맥카시 외 여럿이 제시한 '예술의 혜택 이해를 위한 프레임워크'는 오늘날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프레임워크는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의 가치가 사적 혜택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피어오버를 통해 공적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내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문화예술교육 역시 이 프레임워크 속에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그간의 지역 문화예술교육이 학습참여자와 사업수행 단체의 사적 혜택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공적 혜택을 확장하는 사회적 기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실제 이러한 공적 혜택에 관한 연구와 실천은 커뮤니티 기반 예술(교육) 활동과 예술기반 행동연구를 통해 국내외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었다.

두루 알다시피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을 위한 교육이나 예술을 통한 교육이 아니다. 또 지역민의 문화향유권 분배나 문화예술활동 증진과 기계적으로 직결시키는 것도 곤란하다.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내적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장을 담지하는 정책 개념이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업의 미래는 사회 변화의 맥락 안에서 설계되어야 하며, 사회 비판과 성찰,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인식과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미라 · 정현일, 「커뮤니티 중심의 미술교육이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기초조형학연구』 제18권 6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17.
- 권순석 외 여럿,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 사업유형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7.
- 김세훈 외 여럿,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 김인설,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방향을 위한 탐색적 연구: 다원주의적 사회정의이론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제24권, 한국문화사회학회, 2017.
- \_\_\_\_\_, 「사회자본 증진을 위한 촉매로서의 예술」, 『문화정책논총』 27-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 김희재 외 여럿, 「부산문화예술교육 10년사 연구」, 부산문화재단, 2014.
- 남영희 외 여럿, 「2019 부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부산문화재단, 2019.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2018.
- \_\_\_\_\_, 「예산각목명세서(I, II)」, 2015~2020.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2015.
- 부산문화재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결과자료집』, 2017~2018.
- \_\_\_\_\_,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전문가위원 자문회의 자료」, 2017~2018.
- 서우석 외 여럿, 「2017 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 송재욱 외 여럿, 「2016 문화예술교육 효과 지표 구축 기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7.
- 양혜원 외 여럿, 「201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사업 평가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7.
- 이순욱 외 여럿, 「2018 부산 문화예술교육 종합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부산문화재단, 2018.

- 임영식 외 여럿, 「2013 토요일문화학교 사회적 효과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 임학순 외 여럿, 「2018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 조현성, 「문화예술교육정책 증장기 추진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 최도인 외 여럿, 「2018 문화예술교육 평가체계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
- 최보연 외 여럿,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 최정낭, 「노년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예술기반 실행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2018.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2007~2018.
- 한유석 외 여럿, 「2017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지원사업 평가지표개발 연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17.
- 홍애령, 「지역사회 기반 커뮤니티 댄스 프로그램 <몸짓교실> 사례연구: 교육효과 및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8권 5호, 한국체육학회, 2019.
- Kevin F. McCarthy · Elizabeth H. Ondaatje · Laura Zakaras, *Gifts of the Muse: Reframing the Debate About the Benefits of the Arts*, Santa Monica: The Rand Corporation, 2004.
-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http://www.toyo.or.kr> (검색일: 2019.11.23.; 2020.01.12.)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www.arte.or.kr> (검색일: 2020.01.08.)
- 부산문화재단 <https://www.bscf.or.kr> (검색일: 2019.11.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 2019.11.27.)

〈Abstract〉

## Local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Its Social Role : Focused on Busan Kkoomdarak Saturday School of Culture and Arts Project

Nam, Young-Hee · Jeong, Min-Kyoung · Lee, Soon-Wook

Culture and arts education is a unique policy concept in Korea: It is a complex combination of art education related to aesthetic experiences & expressions, creativity and emotions, and cultural education focuses on the reflection of people and society, cultural diversity and communication. Therefore, the concept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includes the growth of the individual and the growth of the society together. With the enactment of the Culture and Arts Education Support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Art & Culture Education Service, or Arte in 2005, the culture and arts education project was promoted in earnest, achieving a certain scale of growth. However, there was no progress in forming a local identity for each reg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cope dynamically with rapid changes in times and societ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ocial values and roles of local culture and arts education. In this paper, the Busan Kkoomdarak Saturday School of Culture and Arts was used as an example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local culture and arts educat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spillover in the benefit system is necessary: from private benefits limited to participants of each projects to public benefits of the community.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local culture and arts education should play a social role of social criticism, reflection, and recognition and practice of community activities, and pay attention to community-based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artists who practice it.

\* Key Words: Local Culture and Arts Education, Busan Kkoomdarak Saturday School of Culture and Arts, Social Role, Public Benefits, Community-based Culture and Arts Education

· 논문투고일: 2020년 1월 12일 · 심사완료일: 2020년 2월 10일 · 게재결정일: 2020년 2월 17일